

# “민족해방’ 北 선전물 같다” vs “5·18 가치 담은 첫 벽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남대 사범대 '광주민주항쟁도' 벽화 제거 요청

전남대생 커뮤니티 '사범대 벽화 지우기' 게시물 잇따라  
1990년대 시대정신 반영... 의미있는 학생 작품 보존해야  
현실 막막한 젊은 세대 달라진 오월·통일 인식 찬반 논란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전후로 인터넷에 전남대 옛 사범대학 1호관 (현 법학전문대학원)에 그려진 '광주민주항쟁도'를 지워달라는 게시글을 잇따라 올려 논란이다.

벽화에 적힌 '민족해방' 문구와 상단의 백두산 천지 그림이 '북한 선전물 같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5·18 당시 광주시민들은 계엄철폐와 민주화를 요구했던 '민족해방', '자유통일'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 벽화가 오히려 '종북 의혹'을 키운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남대 졸업생들과 교수, 벽화 원작자 등은 5·18때도 통일에 대한 요구가 나온 바 있으며 벽화를 그린 1990년대의 시대정신까지 포함한 결과물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18·19일 전남대 재학생·졸업생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익명의 전남대 학생들이 쓴 '사범대 벽화 지우기', '빨갱이 벽화 없애는 방법', '벽화 좀 고쳤으면 좋겠음' 등 제목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들 게시글은 50여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를 많이 받아 인기 게시글 목록인 'HOT 게시판'까지 올라갔다.

게시글에는 '북한에 외주 맡긴 거라고 해도 철석같이 믿겠다', '대놓고 종북스러운 벽화를 남겨두는 것 자체가 아직도 학교에 간첩세력의 입김이 남

아 있다는 것', '친북한적 오해를 일으키는 벽화를 굳이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그중에는 '벽화가 역사 왜곡을 하고 있으니 5·18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글도 있었다.

또 '5·18갈지도 않고 빨갱이가 그린 것 같다', '민족해방이라는 문구가 있으니 빨갱이 같다', '5·18정신에 민족해방을 끼워팔기 하면서 간첩질하는 세력이 있다'는 등 댓글도 잇따라 달렸다. 일부 학생들이 역사적인 벽화로서 유지해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지만, 곧 '저게 무슨 역사냐', '벽화가 그려진 게 주사파들이 특시급대던 90년대다'는 등 댓글 공세를 받았다.

광주민주항쟁도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주제로 담은 최초의 벽화다.

지난 1990년 5·18 10주년을 맞아 전남대 그림과 '마당', 예술대학 미술과 '신바람', 사범대 미술교육학과 등이 '벽그림 추진위원회'를 꾸려 가로 10m, 세로 16m 크기로 단 5일만에 만들어진 작품이다. 지난 2017년에는 전남대 동문들끼리 '벽화복원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성금과 지원금 등 4600만원을 모아 벽화 복원 작업을 하기도 했다.

1990년 당시 원화를 그렸던 하성흠 작가는 "5·18 당시에도 민주화뿐 아니라 '통일'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특히 90년대 노태우 정권 시기 통일

에 대한 전 국민적 염원이 커지면서 '오월에서 통일로'라는 시대 정신을 담기 위해 민족해방·백두산 천지를 그려넣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980년 5월 15일 박관현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민족민주화대성회에서 "우리가 민족민주화·햇볕대행진을 하는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중략)...우리 민족의 합성을 수습하여 남북통일을 이룩하자"는 뜻이라고 연설한 바 있다.

하 작가는 "사범대 1호관 건물 또한 철거 위기에 놓였다가 벽화의 가치 하나만으로 허물지 않은 것"이라며 "의미를 제대로 살펴보고 말고 무작정 북한 선전물이라고 폄하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상엽 전남대민주동우회 사무국장은 "광주 시민이 빨갱이·폭도로 몰린 것 또한 분단 상황이 만든 비극이므로, 외세로 인한 분단 현실을 극복하지는 못하더라도 '민족해방' 문구를 넣은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통일을 이야기하면 북한을 찬양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한숨을 쉬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최근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 5·18과 통일에 대한 인식이 극명하게 달라진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젊은 세대가 취업 문제로 현실이 막막해지자 통일 문제를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이번 논란에 불이 붙었다는 것이다.

최영태 전남대 인문대학 명예교수는 "최근 젊은 이들은 이념적인 인식이 극단으로 갈려 기성세대보다 더 북한을 싫어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정권에 따라 극우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성세대와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학생들이 24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옛 사범대 1호관 벽면에 그려진 '광주민주항쟁도' 앞을 지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동구 “고향사랑기부금, 광주극장 보존·장애인야구 지원”

광주시 동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광주극장을 보존하고 발달장애인야구단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동구는 24일 고향사랑기부금을 이용한 사업으로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광주극장은 일제강점기인 지난 1935년 유은 최선진 선생이 세운 단관극장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이다. 지난 1945년 이곳에서 해방 기념 축하공연이 열리고 1948년 백범 김구 선생이 연설

을 하는 등 역사를 품은 장소기도 하다.

동구는 기부금을 통해 낡은 영사기와 조명, 좌석 등을 교체하고 극장 연계 관광투어 등 인문·문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좌석을 교체할 때는 기부자 이름을 좌석에 새기는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광주극장을 근현대 문화자원으로 등록해 보존을 용이하게 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동구는 또 발달 장애인 야구단인 ET(East Tigers) 야구단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도 기부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ET 야구단은 지난 2016년 창단한 동구장애인복지관 소속의 발달장애인 야구 동아리로, 올해부터 기존 후원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 중료를 통보하면서 해체 위기에 놓였다. 이에 야구단을 존치하고 실내 야구 활동 공간을 조성해 주는 등 명목으로 기부금을 지원하겠다는 게 동구의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전국적 관심과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면서도 우리 구에 특화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 “담양 송강고 교명 ‘솔가람’도 안돼”

종친회, 변경 재차 요구... 학교 측 “논의 중단·기존 명칭대로”

담양의 한 대안고등학교 이름을 놓고 벌어진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광산 이씨 등 6개 종친회가 모인 '담양-전남 육문모목회'가 최근 '담양 송강고등학교 교명 변경 및 재공모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종친회는 요청서에서 "기축옥사와 송강 정철의 희생양이었던 우리 6대 문중은 지금도 역사의 아픔을 감내하며 살고 있다"며 "대안학교의 교명을 전국 또는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재공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이들 종친회는 조선 선조 22년 기축옥사 당시 송강 정철로 인해 호남 인제가 화를 입었다는 이유를 들어 송강고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해 학교 측이 개명을 추진했고 '솔가람'로 결정했다.

종친회는 그러나 솔가람고도 송강(松江)의

한글식 표기라고 반발했고 도교육청도 학교 측에 보안을 요청했다.

학교 측은 교명 변경 신청 기한인 지난 2일까지 새로운 교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했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자 종친회가 재공모 요청서를 내고 다시 교명 변경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학교에 명칭변경을 요구할 권한이 없고 학교 측에서 변경 신청을 할 경우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강고 측은 "솔가람고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교육청, 종친회 등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명칭 변경을 위한 학생·학부모·지역사회 여론 수렴 과정이 힘들어 지난해 12월 이후 논의를 잠정 중단했으며 기존의 명칭을 사용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교육청, 2024학년도 고교 배정 통학거리 반영

2024학년도 고교 입학에서부터 학생 거주지와 배정 학교간 통학 거리가 반영된다. 배정가능 고교 가운데 후지원 선택 학교 수도 현행 6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31일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부모 대상 2024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핵심 설명 내용은 내년부터 변경되는 후기 평준화 일반고 입학전형이다.

우선 후지원 선택학교 수가 기존 60%에서 70%로 늘었다. 거주지와 너무 먼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통학거리도 추가로 고려된다.

시교육청은 여고·특정학교 기피 현상, 광산구 고교 과밀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배정방식 개선추진협의회를 꾸려 후지원 학교 선택 폭을 넓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학입시 제도의 변화, 고교학점제 이해 등 전반적인 고교 생활도 소개된다.

선지원 선택학교인 과학중점학교(상무고·조대여고·풍암고·보문고)의 경우 풍암고 교사가 직접 과학중점학교의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